

## 교사를 위한 '한국자료집', 중학교부터 준비과정까지<sup>1</sup>

### 진행중인 프로젝트 소개

Marianne ADJIMAN, Arlette PATURE-MAURY, Sébastien BERTRAND

## 서문

### 프랑스 사회에서 대중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관심사다

프랑스의 대중의 교양은 학교를 세웠던 샤를마뉴(8~9 세기 무렵)의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샤를마뉴는 능력을 갖춘 행정 관료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오로지 수도원 부설 학교의 발전만을 장려했다. 아달베롱 드 라옹은 <로베르왕에게 바치는 시 (Poème au roi Robert)>를 통해 세 계급으로 나뉜 11 세기 초엽의 중세 사회를 "기도하는 사람, 전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묘사했으며 라틴어를 읽는 능력은 그 중 첫 번째 계급에게만 필요했다. 최초의 궁정시들은 글로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당시의 사회는 대부분이 구술로 이루어졌다.

16 세기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통해 세 계급 모두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고 라블레(Rabelais)나 비용(Villon)과 같은 작가들은 세속문학의 발전을

---

<sup>1</sup> 이 제목은 프로젝트를 명명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로서 제목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프랑스혁명 직전 무렵에는 글 읽는 사람의 비율이 45% 가량이었고 그 중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적 격차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발전은 개인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었고 교육은 가톨릭 교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19 세기에 들어서 엘리트층이 대대적인 문맹퇴치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7 월 왕정을 설립한) 1833 년 기조(Guizot)법은 모든 코뮌(commune, 읍·면·동 수준)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빈곤층에게 무상 교육을 예고했으나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는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1875 년 공화정으로 전환된 이후, 공화주의자들은 학교를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으로 삼았고 1881~82 년의 쥘 페리(Jules Ferry)법을 통해 6~13 세 사이의 소년, 소녀들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비종교적인 초등교육을 의무로 받게 되었다. 매일 한 시간은 '역사·지리'와 '시민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 **19 세기 말부터, 역사·지리와 시민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어린 프랑스시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민족주의적 소설'의 전파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1912 년 아르망 콜랭(Armand Colin)사에서 출판하고 에른스트 라비스(Ernest Lavisse)가 쓴 '프랑스 역사, 중급'의 표지에는 "아이여, (중략) 그대는 프랑스를 사랑하라. 자연이 아름답게 하고 역사가 그를 위대하게 했으니."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여러 법안을 통해 학제가 변화하면서 의무 교육기간은 점차 늘어나 1959 년에는 16 세까지 연장되었다. 80 년대 정부는 80%의 학생이 바칼로레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하였으며, 교육기관과 교사들은 2015 년 바칼로레아 합격률 77%라는 결과를 내며 이러한 도전에 응수했다. 바칼로레아는 여전히 권위 있는 고등교육으로의 관문이다. 이러한 합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바칼로레아(1968 년)나 직업 바칼로레아(1985 년) 등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택하든 역사·지리, 시민교육은 필수 과목이며 시험을 봐야 한다.

### **프랑스가 열광하는 역사**

역사 교육이 초등에서 중등 교육과정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열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역사는 날짜 외는 것이야"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말이다. 많은 텔레비전 방송이나

잡지 등은 역사와 문화재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게임도 인기가 많다. 역사 과목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치, 미디어, 교육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프랑스가 쇠퇴하고 있다고 믿으며 민족주의적 소설과 위인들에 대한 학습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멀리 떨어진 공간의 역사와 관련 짓는 '연결된' 역사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2016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중학교 2학년 교육은 후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업의 10%를 할애해야 하는 테마 3이 '아프리카를 향한 시선'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무타파 제국(잠베지 지역을 통치하고 인도양에 면해 있던 제국, 1450~1629년) 등 사헬 지역의 세 문명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I. '한국자료집' 사용법

### 1.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은 우리에게 한국 문화의 면모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업용 교재인 '한국자료집'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서울의 사례는 지리 과목의 필수 학습 항목인 세계 도시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얽힌 문제 등의 테마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세계의 쟁점,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다루는 4기 학습의 필수 테마다.

이것은 또한 다학제 실용 학습(EPI)의 "손 안의 키"로서 시간을 아끼게 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례 연구"로 시작된다는 수업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며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시기를 파악한다 : 역사적 지표를 세운다
- 공간을 파악한다 : 지리적 지표를 세운다
- 사고의 전개와 선택을 추론하고 정당화한다
-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를 얻는다

-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 역사·지리의 다양한 용어를 익힌다
- 협동하고 서로 돕는다

## 2. 고등학교

한국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소 제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표 Ⅱ, Ⅱ-2 섹션 참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하지만 두 번 한국이 확실히 인식되는 때가 있다. 하나는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장벽이 세워졌던 시기인데, 냉전이 마감되며 희미해졌다. 또 다른 한 번은 지리에서 세계화를 다룰 때, 동아시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4 마리의 용'이 인용된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원하는 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업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자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통해 보충될 수 있다.

## 3. 준비 과정

문학, 경제, 상업 계열 준비 과정에서는 한국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발표 Ⅱ, 그림 3, ECS 부분 참고) 특히 첫 번째 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이 등장한다.

- **프로그램의 유연성** : 지리나 현대사뿐 아니라 문학이나 근대사, 중세 역사, 고대 역사(고대부터 18 세기 말까지의 역사를 말함)를 막론하고 한국과 관련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 **두 과정에서 역사·지리의 주간 수업 시간** (대략 6 시간)
- **학생들의 학습 능력**
- **다양한 활동 제안**(발표, 자료 등)과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실현

## II. 프로젝트 실현 과정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모철민 대사의 바람에 따라 대사관 산하 한국교육원에 의해 출범한 본 프로젝트는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이부런 한국교육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안느캥 역사·지리 교육감독관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수준에 적합한 실용적인 교재를 엮어 제작하는 것이다. 이 교재의 테마들은 2016년 5월 24일에 열릴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다.

표 1 - 학습 주제 (Annequin 역사·지리 교육감독관의 구상)

한국을 다룬 역사·지리 교재의 학습 주제 제안			
	예정 주제	제안된 사례연구	학문적 조명
지리	주거		
	도시		
	산업화와 세계화		
	대한민국의 지정학		
역사	권력 - 국가		
	전쟁		
	냉전		
	기억		
문화 - 도덕과 시민교육	종교의 다양성과 세속주의		
	문화적 표현과 현실		
	현대성과 전통		

### Ⅲ. 편집자들과의 교류

교과서나 대학교재의 편집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기에 많은 지지를 받는다. 교과서 편집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작업한다.

#### 1. 공식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교과서 편찬

이러한 교과서 편찬은 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수 개월 이전에 편집자들은 교사들로 팀을 꾸리고 이 교사들은 교과서의 각 장을 분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통일성 있게 취합하는 작업을 맡는다.

이 교사들은 반드시 본인들이 공동 집필한 교과서에 맞는 단계에 재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사들은 함께 본인들이 수업에 사용하고 싶은 교과서를 선택한다.

그림 2 : ECS 준비과정용 한 교과서의 표지와 첫 번째 페이지 (2013년 판)



## 2. 교과서와 대학교재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한 주제별 교과서의 편찬

이러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 내용을 모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재들은 대개 간편하고(작은 크기), 쉽고(구체적인 형식, 쉬운 언어, 그림 등), 싼 가격(그림 3)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공에 힘입어 여러 번 일반적으로 여러 번 재판된다. (그림 4)

그림 3: 아르노 르보(Arnaud Leveau), « 대한민국의 지정학 », 파리, Argos, 2014 의 표지와 뒷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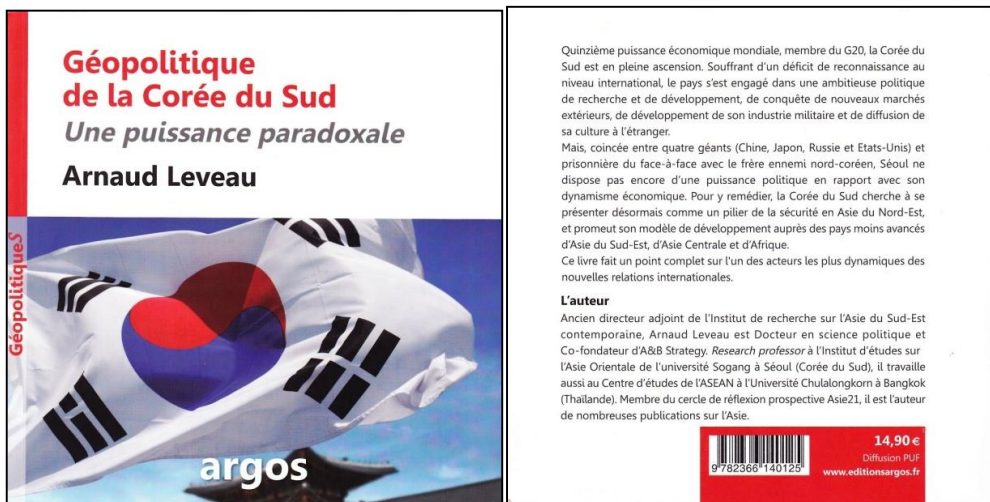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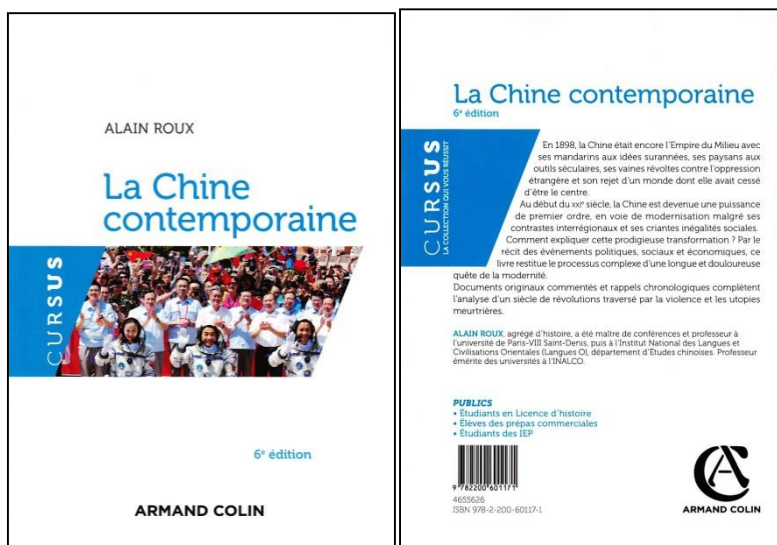


그림 4: 알랭 리우(Alain Rioux), « 오늘날의 중국(6 판)», Paris, Armand Colin, 2015 표지와 뒷표지



우리가 만든 교재를 통해 프랑스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학생들이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